

꺼지지 않는 촛불의 물결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서울시청이나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저는 재기발랄하고 거침없는 10대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시키지도,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없는 서명대에 모여서는 '쇠고기 재협상, 한-미 FTA 비준 반대' 를 위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론지 또 재잘되며 뛰어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7일 오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있던 집회에 참석하러 가던 학생들이더군요.

촛불문화제가 있을 때에는 종종 시청 앞이나 청계광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뒤편에 앉아 한농연 부회장님들, 농민단체장님들과 촛불을 들고서 학생들의 자유발언도 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한농연이나 다른 단체 회장님들처럼 연설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이뤄내야 하겠다는 강렬한 소망과 외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10대 학생들에게 힘을 내라고 큰 함성과 촛불로써 화답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보수언론의 보도처럼 '불온한 세력이 선동하지 않았는데도' 10대 학생들이 나서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당장에 학교급식에서 광우병에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모습에 분노해서였습니다. 아니, 이러한 10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 이라며 애써 의미를 깎아내리려던 어른들의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음 때문에, 선생님들의 엄포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10대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뻘 되는 어르신들까지 촛불문화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의를 벌여 성과를 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너무나 냉정해 보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 촛불들의 성난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영수회담도 20일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정치인들이 움찔하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갈 길은 멀지만, 농민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좀더 나은 세상으로 발디딜 수 있는 희망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350만 농민과 12만 농업경영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국민과 함께 하는 농권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촛불문화제에 나온 10대 학생뻘만한 아들딸이 있으실 겁니다. 20대 청년실업 시대를 어렵게 헤쳐가면서 촛불을 들러 온 대학생 자녀도 있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한농연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농민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